

운전자 성향 따라 최적화된 배터리... 최대 386km 주행

기아자동차 '2021 쏘울 EV' 출시

도심형·기본형 배터리 2개 모델
전방충돌방지보조 등 안전성 높여
전트림에 원격시동 스마트키 적용

기아자동차가 23일 운전자의 평소 주행 거리에 맞춰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2021 쏘울 EV'를 출시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2021 쏘울' 모델은 첨단 편의 사양을 기본화하는 등 상품성을 높였다.

기아차는 '2021 쏘울 EV'를 출시하면서 전기차 구매 고객의 운행 성향을 분석해 트림별로 최적화된 배터리를 적용했다.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50km인 도심형 배터리를 장착해 경제성을 중시하는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노블레스 트림에는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86km인 기본형



기아차 '2021 쏘울 EV' 전측면.

배터리를 적용해 장거리 운전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기아차는 '2021 쏘울'에 전방 충돌방지보조(FCA), 차로 이탈방지보조(LKA), 운전자주의 경고(DAW), 하이빔 보조(HBA) 등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을 기본 적용해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원격시동 스마트키를 새롭게 전트림 기본 적용하는 등 첨단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소형 SUV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 외에도 기아차는 2021 쏘울과 쏘울 EV에 ▲후석 승객 알림 ▲공기청정 모드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등 다양한 편의사양을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2021 쏘울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안전, 첨단 편의사양을 기본화한 가솔린 모델과 실제 사용 고객에 최적화된 상품성을 갖춘 전기차 모델로 고객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제품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2021 쏘울의 가격은 트림 별로 ▲프레스티지 1910만원 ▲노블레스 2101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2293만원이다. 2021 쏘울 EV의 가격은 ▲프레스티지 4187만원 ▲노블레스 4834만원으로 서울시 기준 전기차 구매보조

금을 적용받으면 ▲프레스티지 2993만원 ▲노블레스 3564만원이다.

한편 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로 통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에서 기아차는 일본 도요타와의 판매량 격차도 1500대 수준으로 좁히며 추격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총 5만3477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2018년 판매량 19위에서 단숨에 11위로 뛰어올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코로나19에 스마트폰 판매도 직격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38% ↓
삼성 인도공장 등 가동 멈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스마트폰 업계도 판매에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무너진 탓이다. 3월 이후에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6180만대로 지난해 2월 9920만대에서 38% 감소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가 중국내수 시장을 축소시키고 다른 국가로도 번지고 있는 영향이다.

인도 공장의 스마트폰 생산 중단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중국 오포·비보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인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폰 공장 가동을 멈췄다. 애플은 중화권을 제외한 전 세계 애플스토어를 무기한 폐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 성과도 이전보다 못한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6일 출시한 '갤럭시S20' 시리즈는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과 최상위 스펙을 갖춘 울트라 모델이 150만원에 육박하는 높은 가격과 낮은 공시지원금으로 인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였다. S20시리즈의 사전 예약 판매량은 전작인 갤럭시S10의 70~8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BMW코리아 '뉴 2시리즈 그란쿠페' 출시

BMW코리아가 '뉴 2시리즈 그란쿠페'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뉴 220d 그란쿠페가 먼저 상륙한다.

뉴 2시리즈 그란쿠페는 BMW 컴팩트 세그먼트 최초 4도어 쿠페다. 스포티한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더했다.

외관은 BMW 쿠페를 그대로 재현했다. 낮고 넓은 비율에 새로운 키드니 그릴과 풀 LED 헤드라이트, 크롬처리된 배기파이프 등이다.

그러면서도 실내 공간 활용성은 극대화했다. 2시리즈 쿠페보다 뒷좌석 레그룸을 33mm 늘리고, 높이도 12mm 높게했다. 트렁크 용량은 40리터 늘어난 430리터로, 뒷좌석을 접어 더 공간을 쓸 수도 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를 기본 장착해 공간감도 높였다. 뉴 220d 어드벤처를 제외한 모델에는 엠비언트라이트 '일루미네이티드 인테리어 트림 피니시'를 적용한다.



뉴 2시리즈 그란쿠페 /BMW

파워트레인에는 트윈파워 터보 4기통 디젤 엔진에 8단 스텝트론 자동 변속기를 조합했다. 최고출력 190마력에 최대토크 40.79kg·m를 발휘한다. 복합연비는 13.9km/L다. 액추에이터 휠 슬립 제한 장치(ARB)는 휠 슬립을 제어해 역동적인 주행을 돕는다. 다이내믹 스태빌리티 컨트롤(DSC)과 연계해 언더스티어도 최소화한다. 트림은 어드벤처와 럭셔리 등 2개로 판매된다. 가격은 각각 4490만원, 4760만원이다. /김재용 기자 juk@

질주본능 품은 세단... 전 세대에 매력 뽐냄



기아자동차 '3세대 K5'

입소문 타고 한달간 4349대 판매
강풍·고속 주행에도 안정적 주행
이중접합유리 적용 '정숙성' 유지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도 높지않아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3세대 중형 세단 K5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신형 쏘나타와 그랜저 부분변경 모델 등 경쟁 모델의 등장에도 K5는 지난 2월에만 4349대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했다. 이에 K5 가솔린 1.6터보 시그니처 모델의 장거리 주행을 통해 인기 비결을 분석했다. 시승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전라남도 목포를 경유해 돌아오는 왕복 700km에서 진행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넓은 실내공간과 뛰어난 퍼포먼스 등을 갖추고 있어 젊은층은 물론 노년층도 선호할 만한 매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

우선 실내공간은 전장 4905mm로 이전 모델에 비해 50mm 늘어나면서 뒷좌석에 탑승해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다. 전폭도 25mm 확대된 1860mm로 제작됐다. 앞, 뒤 바퀴의 중앙부를 연결하



기아차 3세대 K5.



기아차 3세대 K5 실내.

는 휠베이스는 2850mm로 동급 최대 수준이다. 반면, 전고는 기존 모델에 비해 20mm 낮은 1445mm로 설계해 역동적인 스포츠 세단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실제 시승 당일(지난 20일)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불었지만 기존 모델 대비 전고를 낮춰 안정적으로 서해대교를 주행할 수 있었다. 시속 100km를 넘어 고속구간에 접어들었음에도 안정적으로 달렸다. 특히 이중접합유리가 적용된 앞좌석은 고속에서 뛰어난 정숙성을 유지했다.

또한 8단 자동변속기와 어우러져 최

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힘을 뽐내내는 스마트스트림 G1.6 T-GDi 엔진의 주행성능도 매력적이다. 콤포트 모드 주행시 2000~3000RPM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변속이 이뤄졌다. 고속 주행에서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자 3000~4000RPM 부근에서 변속을 해가며 경쾌한 주행을 이어갔다. 콤포트와 스포츠 모드의 주행 퍼포먼스가 완벽하게 차별됨을 느낄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진행한 반자율 주행성능은 만족스러웠다. 앞 차량과의 차간 유지는 물론 곡선 구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차선을 유지했다.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 차량 스스로 주행을 이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다. 덕분에 장거리 주행에도 운전자의 피로도는 높지 않았다.

3세대 K5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2.0 모델이 2351만원에서 3063만원이며 1.6 터보 모델은 2430만원에서 3141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SK이노베이션 채용 면접·필기전형 화상 진행

SK이노베이션이 전 채용과정에서 '인택트(비대면 접촉)'로 코로나19 대응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23일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모든 채용에 화상 면접을 도

입한 데 이어, 신입사원 채용 과정의 핵심 부분인 필기전형도 화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심층역량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SK이노베이션은 인택트체

용의 일환으로 온라인 심층역량검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심층역량검사는 응시자가 사전 고지된 매뉴얼에 따라 각자 PC에서 화상통화 시스템에 접속한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온라인 검사를 진행하고 감독관은 화상으로 지원자들이 원만하게 시험을 보고 있는지 지켜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